제10권 17호
2020. 8. 17~2020. 8. 30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코로나19와 한국경제, 그리고 이후의 변화
이슈분석	코로나 사태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
금융경영브리프	美 여성 부유층, 자산관리시장 주요 고객군으로 부상 보험사, 전략적 디지털 파트너쉽으로 미래 대비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공급 부담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상승 전환 외 환 : 터키發 금융 불안의 영향은 제한적 부동산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상승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곽영훈(yhkwak)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
수석연구원 황선경(skhwang)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부동산 |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0권 17호
2020. 8. 17~2020. 8. 30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01 논단 코로나19와 한국경제, 그리고 이후의 변화

04 이슈분석 코로나 사태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

08 금융경영브리프 美 여성 부유층, 자산관리시장 주요 고객군으로 부상
보험사, 전략적 디지털 파트너쉽으로 미래 대비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공급 부담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상승 전환
외 환 : 터키發 금융 불안의 영향은 제한적
부동산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상승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코로나19와 한국경제, 그리고 이후의 변화*

김 상 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brainkim75@hansung.ac.kr)

코로나19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2%가 넘어가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변화에 대해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소비의 비대면화, 데이터나 기술 관련 투자, 기업 리쇼어링에 대한 각종 대비, 수출 다변화 등에 대한 큰 방향의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방법을 찾아 자산불평등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에 대비하여 산업 정책을 펼쳐야할 시점이다.

2019년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를 거쳐 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에 순차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국내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전망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전망과 이후의 변화, 그리고 대응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경제성장률 -2%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2% 이하인 경우가 경기침체(recession)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경제는 두 차례 오일쇼크, 1990년대 부동산 경기침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침체를 나타내었다.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인 2%이하를 나타낸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5.5%,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 -1.7%,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등 세 차례로 1998년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경제의 침체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과거 세차례 경제침체 상황을 겪었고,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6월 9일,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1월 2.5%에서 -5.2%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로 대폭 하향 전망하였다. 미국 1.8%에서 -6.1%, 유로존 1.0%에서 -9.1%, 일본 0.7%에서 -6.1%, 중국 5.9%에서 1.0% 등으로 하향 전망하였다. 주요 원인은 각국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10일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하였다. 재확산이 없는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은 3월 전망 2.4%에서 -6.0%로, 재확산이 있는 경우 -7.6%로 전망하였다. 미국은 1.9%에서 -7.3%와 -8.5%로, 한국은 2.0%에서 -1.2%와 -2.5%로 전망하였다. 유로존 0.8%에서 -9.1%와 -11.5%로, 일본 0.2%에서 -6.0%와 -7.3%로, 중국 4.9%에서 -2.6%와 -3.7%로 전망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급박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정보다 빠른 6월 24일에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놓았다. IMF는 1월과 4월에 전망치를 냈는데, 4월이면 코로나19가 이미 유럽까지 퍼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3.0%에서 -3.0%로 대폭 하향 전망하였고 6월에 -4.9%로 더 하향 조정되었다. 미국은 1월 2.0%, 4월 -5.9%, 6월 -8.0%로, 유로존도 1.3%와 -7.5%에서 -10.2%로, 일본은 0.7%와 -5.2%에서 -5.8%로, 중국은 6.0%와 1.2%에서 1.0%로 하향 전망하였다. 한국은 4월 -1.2%로 예측하였고, 이번에 30개국으로 확대한 보고서에서 -2.1%로 하향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실직 장기화, 금융여건 악화 등 팬데믹 관련 위험, 미중 긴장 고조, OPEC+ 국가 간 갈등, 사회적 불안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세 국제기구 모두 시간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하향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연구기관 대부분은 코로나19의 시나리오에 전망이 다르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0%대 내외를 전망하고 있고, 소수의 연구기관들은 -1.6%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4월까지의 산업생산지수 등 월별·산업별 대분류 자료와 중분류 자료를 활용하면 최악의 경우에 -2.7%까지도 하향 전망된다. 따라서 추후 수정 전망되는 국내 전망치는 국제기구의 수정 전망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변동과 대응

코로나19의 확산이나 재확산에 의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을 비롯한 경제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이나 EU를 비롯해서 한국까지도 민간부채 증가율보다 정부부채 증가율이 빨라지게

된다. 민간에서 온라인 소비 등의 무형자산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민간 비대면 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정부의 사회복지·보건·환경 등의 소비성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비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붕괴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륙 내 또는 지역 내에서 거점화가 되거나 지역 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소비의 비대면화, 데이터나 기술에 관련된 투자, 기업의 리쇼어링에 대한 각종 대비, 수출 다변화 등에 대한 큰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는 산업 지형 변화 및 장기침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산업에 대해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부분으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야 한다. 산업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하까지 기술 수준, 인력 및 생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 한국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민간과 함께 전 산업을 대상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에 과감한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 각종 세제 변화, 기업부채 감소 방향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대응, R&D 투자 등은 물론, 수출입과 관련하여 각종 제도 변화,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 역할 등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나 경제침체가 발생하면, 가계나 기업의 자산가격에 변화가 발생하고,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도가 올라가게 된다. 특히, 정부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방법을 찾아 자산불평등도를 낮추어야 하며, 이는 가계부채와 연결된다. 저출산·고령화 해결은 위의 정책과 연금, 교육, 주거,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데믹 이후에도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에 대비하여 일본과 미국의 1990년대 이후 경기대응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일본이 막대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확장을 이용하고도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온 점, 반면 미국은 산업 구조조정과 일부 정책으로 2010년대 경기호황이 왔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 대응은 코로나19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L자형 장기침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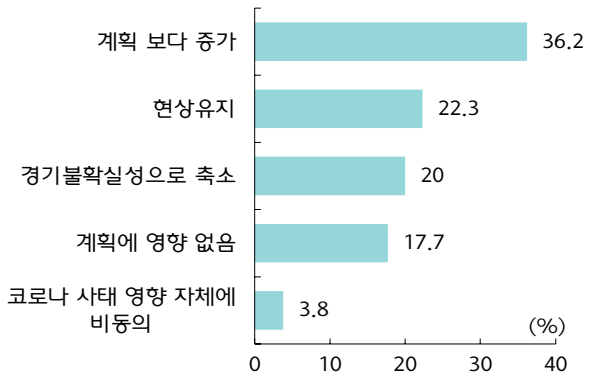
김 남 훈 연구위원(zec89@hanafn.com)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면 거래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언컨택트 환경으로의 빠른 전환이 진행되면서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데이터와 비용절감이 화두가 되며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진전과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의 경우 핵심시스템 영역까지도 클라우드로 전환 중이며 국내 금융사들도 클라우드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향후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단계별 도입 계획과 가버넌스 수립 및 전문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대면 거래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언컨택트 환경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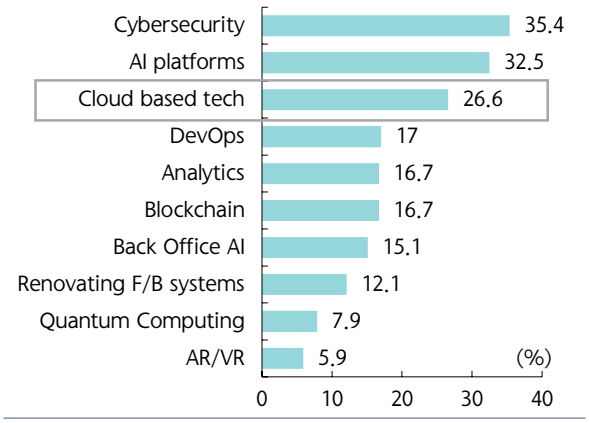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은행의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간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 전략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EIU가 금융권 CEO 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규제 대응(42%) 및 고객 행태 변화(24%)보다도 AI 등 신기술이 금융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대면 채널이 무력화되고 언컨택트 환경 하에서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업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디지털 역량이 기존 금융사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대
  - 고객 지원, 계좌개설, 신용평가, KYC 등의 비대면 절차와 관련한 디지털 역량 개선
- 이를 위해 경영자들은 사이버 보안, AI플랫폼 개발, 클라우드 기술 등을 비대면 전환에 따른 주요한 디지털 역량 확보 분야로 인식
  - 사이버 보안(35.4%), AI플랫폼(디지털 조언/음성 지원, 32.5%), 클라우드 기술(27%)

■ 글로벌 기업 CIO 대상 코로나 이후 IT투자 조사



자료 : J.P. Morgan, 'CIO Survey 2020', 2020.4

■ 금융사들의 기술투자 분야



자료 : EIU, 'Forging new frontiers', 2020

■ 특히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대응과 비용 절감 이슈가 겹치며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진전과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전망

- 모바일, 온라인 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이용자 트래픽의 확대와 원격 근무, 화상 미팅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에 촉매로 작용
  - 원격 근무, 화상 회의 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새로운 기업 문화로 정착

- 무엇보다 코로나로 촉발된 경기침체 속에 경제적, 고객가치 측면에서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작업 이관이 확대
  - Celent의 금융기관 대상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금융회사의 41%가 업무의 75%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했거나 이관할 계획(Celent FI Survey, 2019.12)

- 맥킨지는 글로벌 은행업무의 14%정도만 클라우드로 전환됐으나 향후 10년 간 40~90%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SasS환경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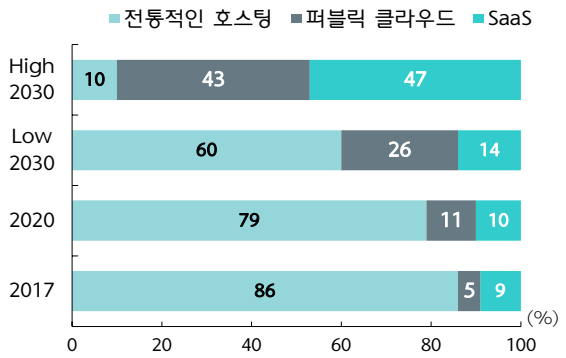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사들의 경우 리스크 모델링 등 제한적 영역에서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핵심 시스템 영역까지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추세

-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최근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핵심 영역까지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
  - 컨테이너(Container)기술 등의 도입으로 과거 대비 업데이트, 복구 및 재가동 용이

- BofA는 IBM과 협력을 통해 금융업에 특화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용할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으며 최근 BNP Paribas, MUFG 등도 참여 및 검토계획을 발표
  - BofA는 '19년 기준 IT업무의 80%를 자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수행 중

- DBS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구해 왔으며 레가시 시스템의 대부분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이전 대비 IT 비용을 70% 감축한 것으로 파악

■ 금융사들의 클라우드 도입 전망



자료 : Bank of England, 'Future of Finance', 2019

■ 해외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 현황

구분	도입 사례
Citi	- 비민감정보 중심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BofA	- IBM과 금융 전용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추진
USAA	- 각 계열사에 클라우드 기반 인증 서비스
BBVA	- 전세계 직원 간 협업을 위한 시스템 관련
Deutsche Bank	- BaaS 확대를 목표로 영역도 구글과 협력 확대

자료 : 보도자료, KPMG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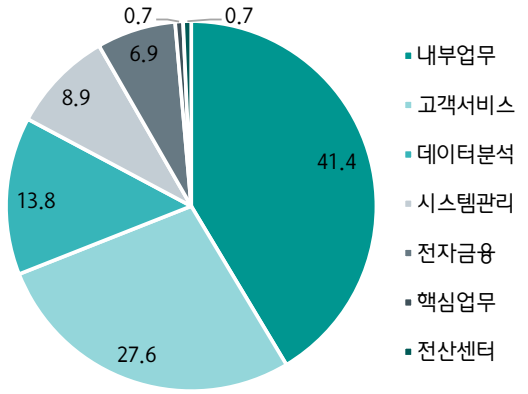
■ **국내의 경우 금융권 클라우도 도입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비핵심 업무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분까지 클라우드 도입이 검토되는 중**

- 정부는 2016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나 금융권의 경우 개인·고객 민감정보는 불허함에 따라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
  - '19.1월 개인정보 및 고유정보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 가능토록 제도 변경
- 2019년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가능토록 제도를 바꾸면서 금융권에도 내부 업무 및 대고객 서비스 위주로 도입이 지속
  - 금감원의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조사('20.6) : 110개 회사 중 38.2%가 사용 중
- 다만 아직까지 핵심 영역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은 미미하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민감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클라우드를 도입 중인 상황

■ **관련 클라우드 벤더들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금융그룹도 그룹차원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하에 클라우드 전환에 속도를 내는 상황**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정보계 뿐만 아니라 계정계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차세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는 정보화계획을 발표
- 신한금융은 그룹 차원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회사와 클라우드 업체와의 합자회사 설립 등도 추진하며 신사업을 모색 중
  - 신한DS는 클라우드 관리업체(베스핀글로벌)와 합자회사 추진을 통해 금융권 특화된 클라우드 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대외 사업화할 예정
- KB, 하나, 우리금융 그룹 등도 핀테크와의 협력 및 일부 정보계 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로 전환해 신속한 상품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 중
  - KB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마이데이터 플랫폼 등에 활용 예정

■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분야 및 비중** (단위: %)



자료 : 금융융감독원 보도자료, '20.7

■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클라우드 도입 현황**

구분	내용
KB	- '17년 모바일뱅킹 '리브똑똑' 일부기능 클라우드화 - '18년 핀테크 협업플랫폼 '크레용', 클라우드로 구축 - '24년까지 그룹 공동 클라우드 구축할 계획
신한	- '16~'17년 해외법인 인터넷뱅킹 클라우드 전환 - 그룹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표준화 및 로드맵 기반 관계사 클라우드 전환 작업 진행 중
하나	- '18년 그룹 공용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오픈 - '20년 U2L(Unix to Linux)전환 추진 예정
우리	- '19년 그룹 공동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추진 -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클라우드센터 추진 예정

자료 : 보도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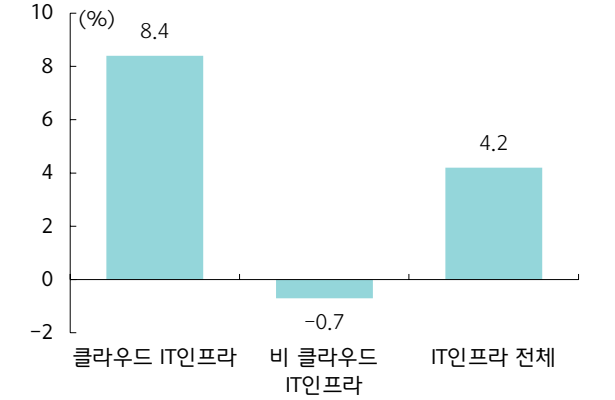
■ **업무 환경 전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신사업기회 발굴 차원에서 클라우드 환경 도입이 늘어날 전망**

- 경기침체로 IT 투자도 보수적 기조로 전환되겠으나 디지털 전환과 IT운용 효율화 측면에서 효과가 큰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IDC는 '20년 글로벌 IT지출액에서 IT인프라 분야만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단순한 비용 절감 측면에 그치지 않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기존 레가시 환경을 지원하되 IT확장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형태로 도입이 확대
  -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조합하고 다수의 공급자를 선택하는 멀티하이브리드형이 확대
- 또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AI, IoT 기반 데이터분석과 블록체인 기술과의 결합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기회 발굴 차원에서도 확산이 지속
  - 인프라만 이용하는 방식(IaaS)에서 플랫폼도 포함하는 방식(PaaS)으로 도입 확대

■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신속하고도 목적에 맞는 전환을 위한 단계별 계획 마련 및 보안, 운영 인력 및 기술 등 관련 역량 확보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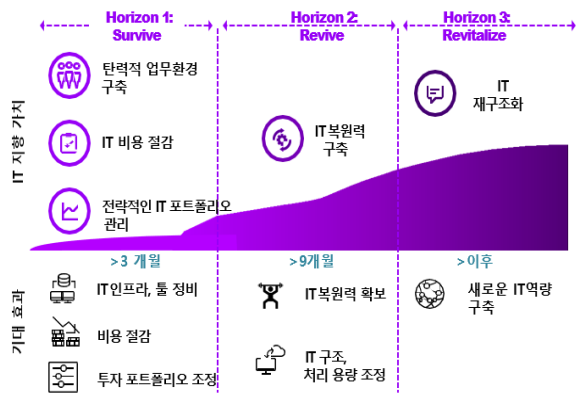
- 코로나 사태 이후 비용절감 단계를 넘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IT재구조화를 목표로 외부 협력, 글로벌 대응 등을 감안한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할 필요
  - 마이데이터, DID 등 하이브리드/멀티 영역과 도입 체계화 및 자원 활용, 재배치 검토
- 중장기적으로 코어뱅킹 영역도 CNC(Cloud Native Computing)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도입 범위와 속도에 대한 대응안 마련
  - 글로벌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관계사 간 공동 클라우드센터 구축 등 포함
-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보안 이슈, 규제 준수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함께 도입 분야에 대한 중장기 구축 전략이 필요

■ 기업들의 IT인프라 투자 전망(~2024 IT인프라 CAGR)



자료 :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내 IDC자료 재인용

■ 코로나 사태 이후의 기업들의 IT투자 방향성



자료 : Accenture, 2020

美 여성 부유층, 자산관리시장 주요 고객군으로 부상

황 선 경 수석연구원(skhwang@hanafn.com)

맥킨지는 미국 자산관리 시장에서 향후 3~5년 사이 상당 규모의 자산을 여성이 보유하게 될 것이며 10년 내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동인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현재 자산관리시장의 주 고객인 베이비부머 가구의 자산이 여성 배우자에게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른 부의 증대도 하나의 중요한 동인으로 꼽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여성 부유층의 자산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미국, 2030년까지 여성이 30조 달러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1]

- 남성 배우자 사망시 보통 더 젊고 평균수명이 긴 여성 배우자에게로 부가 이전될 것이며 향후 10년 이내 연간 GDP에 근접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미국 부유층 투자자산의 약 70%는 베이비부머 가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3는 남성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짐
-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른 경제력 증대로 투자가능 자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젊은 여성 부유층은 점차 재정관리에 능통해지고 있음
  -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이 '15년 29%에서 '19년 44%로 증가하였으며 5년 전보다 금융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기혼여성이 30% 증가
- 단순히 베이비부머 여성을 고객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기존 수익의 1/3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여성 부유층은 남성보다 투자의사 결정시 전문 어드바이저에 의존하며 쉽게 교체

- 여성 부유층이 남성보다 재무목표와 현실의 괴리감을 크게 느끼며 금융의사결정권 인계시 개인적 니즈에 더 잘 부합하는 새로운 자산관리사를 탐색
  - 특히 미망인의 경우 70%가 배우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자산관리 회사를 변경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움직이는 돈(money in motion)이 많아지면서 자산관리 어드바이저에 대한 신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새로운 금융환경 하에서 소비자들이 재무상황을 재평가하게 되면서 기존 자산관리사를 이탈하여 new norm에 적합한 회사로 이전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1| "Women as the next wave of growth in US Wealth management", Mckinsey, 2020.7

■ 자산관리社는 여성 부유층 고객의 니즈와 선호, 행동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 여성 부유층은 남성보다 투자의사결정 시 자신감이 낮으며 재정 목표달성과 금융지식에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줄 전문적인 FA를 구하고자 하는 경향
  - 여성 부유층의 1/4만이 투자 및 저축 의사결정에 자신감을 표했으며(남성과 15%p 차이), FA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고 느낌
  - 자문료 프리미엄 지불의사가 남성보다 크며 대면서비스에는 1%, 디지털서비스에는 0.1%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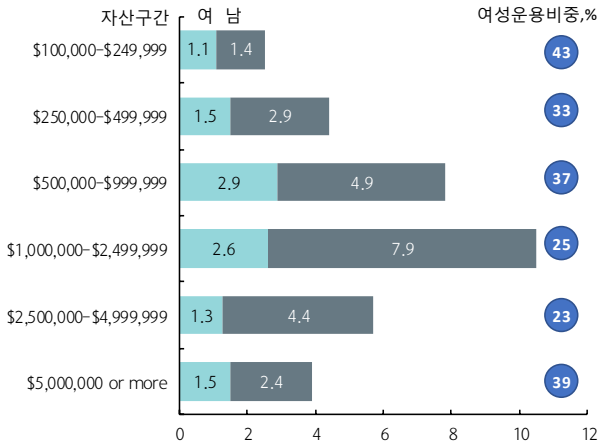
- 또한 남성보다 투자위험 감수도가 낮고 실질적 목표를 중시하며 FA 선정시 유대감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금융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포커스
  - 투자를 통한 막연한 자산의 증식보다 은퇴 후 생활, 건강관리 비용, 보험, 현금흐름 관리 및 일상적인 재정관리에 대한 자문 니즈가 더 강함
  - FA와의 신뢰와 개인적인 유대감 형성을 남성보다 중요시하며 결혼, 승진,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 굵직한 라이프이벤트가 재정 관리의 전환점으로 작용

■ 국내 자산관리社들도 투자자로서 여성 부유층의 부상에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검토

- 국내 여성 부유층 손님에 대한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고 손님 세분화(예: 여성CEO, 미망인,싱글맘 등)를 통해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 여성 전용 구독서비스/네트워킹 및 교육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남편/아내 분리 목표설정 재무설계 등 다양한 가치제안을 통한 고객 확보

- 특히 여성 부유층 손님의 라이프이벤트별 니즈에 기반한 상품 및 서비스 고려
  - 일부 美 자문사는 이혼 여성의 재정 독립을 위한 플래너를 포함한 변호사, 테라피스트,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토탈 케어 서비스 제공

■ 성별 통제 자산 규모 (단위:조달러)



자료 : Mckinsey

■ 美, 남·녀간 금융 니즈 비교 (단위:%)

항목	남성	여성
Healthcare	41.8	47.7
Outliving assets in retirement	35.7	46.4
Savings for retirement	38.7	46.3
Lifestyle maintenance	38.6	45.7
Poor market performance	32.8	44.0
Rainy-day fund	33.2	41.2
Tax reduction	32.4	37.5
Day-to-day expenses	26.7	33.0
Long-term-care insurance payments	22.3	29.2
Family cover should something happen	33.8	30.1

자료 : Mckinsey

보험사, 전략적 디지털 파트너쉽으로 미래 대비

최 제 민 연구원(jeminchoi@hanafn.com)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도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디지털 파트너 선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통신사와 같이 강력한 고객기반 및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 여정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역량이 있는 파트너와의 협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보험회사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발 소비행태 변화로 국내외 보험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1]

-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소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외 보험사의 온라인 판매도 함께 증가하는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증가
  - 코로나19 직후 30일간 온라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판매 각각 (YoY) 40%, 20% 증가
-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헬스케어 관련 보험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상품 구매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보험업계도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영업 역량 강화 및 온라인 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요구

■ 디지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파트너쉽(digital partnership) 전략 고민 필요

- 보험사의 온라인 영업 확대 방법은 고객과의 직접적 채널(D2C) 확대, 온라인 중개업자 (aggregators) 활용 및 플랫폼 파트너와의 제휴로 구분이 가능
  - 플랫폼 파트너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쿠팡, 삼성, SK텔레콤, 은행, PayCo,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을 뜻함
- 보험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표준상품의 경우 온라인중개업 채널 활용이 유리하고,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한 영업 전략은 플랫폼 파트너와의 제휴가 유리
- 보험사별·상품별 개별 특성에 따라 파트너쉽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보험사의 자체 디지털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전략적 파트너쉽에 대한 고민은 필수
  - 특히, 최근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급성장으로 플랫폼 파트너와의 협업 중요

|1| "Insurance: Post Covid19 Digital Partnership Models", Oliver Wyman 202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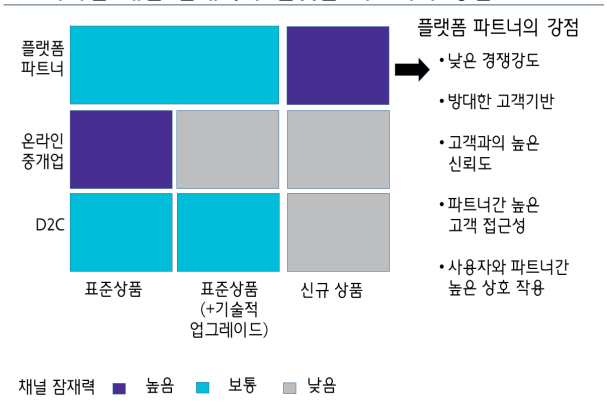
■ 플랫폼 파트너 선택시 고객 규모·충성도, 수익창출 가능성 등 다양한 요건 점검 요망

- 최근 보험사와 플랫폼 보유 기업간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무분별한 협업보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한 플랫폼 파트너 선별할 필요
- (방대한 고객기반) 대규모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 충성도가 높은 플랫폼
- (고객 관련 빅데이터 접근성) 고객의 행동(behavioral) 데이터, 상황(contextual) 데이터, 경험(experience) 데이터 등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보유한 플랫폼
- (데이터 분석 역량) 초세분화(micro-segmentation)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화·최적화된 상품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 (고객 여정과 보험 상품 결합 잠재력) 플랫폼 사용 고객의 여정에 따라 보험상품을 결합해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 (방대한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 디지털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

■ 국내 보험사도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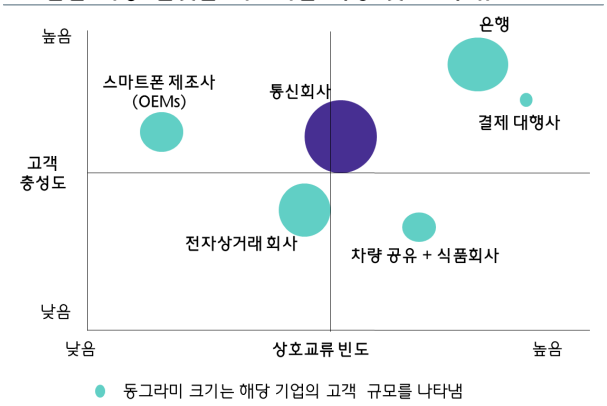
- 향후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상품 수요가 갈수록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산업 진출 등으로 경쟁 심화 가능성 높음
  - 국내 보험사 CEO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협요인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경쟁자 출현을, 기회요인으로는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를 선정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카카오 등과의 협력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win-win 파트너쉽 모델 지향할 필요
  - 예를 들어, 통신사(SK텔레콤, KT, 등)와의 협업 강화시 방대한 고객기반 및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 위험도 낮아 유리

■ 디지털 채널 잠재력과 플랫폼 파트너의 강점



자료 : Oliver Wyman

■ 협업 가능 플랫폼 파트너별 특징 및 고객 규모



자료 : Oliver Wyman

금리: 공급 부담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상승 전환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던 주요국 국채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지표 호전으로 빠르게 반등했고 국내도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했다. 하반기 들어 투자기관들의 채권 매수 여력이 감소하고 연준의 자산 매입 역시 정체된 가운데, 미국 채권 시장은 대규모 발행에 따른 수급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는 견조한 채권 매수세로 공급 확대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4차 추경과 대외금리 상승이 맞물릴 경우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던 주요국 국채 금리는 경제지표 호조와 발행 확대 부담 속 상승

- 미국의 재정 부양책 합의가 교착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주당 400달러, 현재는 600달러 지급)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강행
- 미국 재무부는 재정 부양책과 세수 부진 속 하반기 대규모 차입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장기물 중심의 국채 발행을 예고해 장단기 금리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
  - 미국 국채 2/30년 금리차(bp): 7월말 108 → 8.13일 124
- 주요국 금리는 미국 코로나 확산세 완화와 양호한 경제지표, 미국 30년물 입찰 부진 등으로 상승(美/英 국채 10년(%): 7.31일 0.54/0.11 → 8.13일 0.72/0.24)

■ 국내 시중금리는 대외금리 상승과 4차 추경 가능성으로 장기영역 중심 상승 시현

-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가 확인됐으며 일부 위원은 현 기준금리 하에서 채권매입 확대를 통한 시장금리 안정 의견 제시
  - 다만 채권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기대난
- 한시적 LCR 규제 완화 조치 종료 임박 및 은행권 수신 이탈에 따른 CD 발행과 은행채와의 금리 괴리 축소 기대 등으로 CD 금리 하락 압력 부각
  - 은행채3개월/CD91일물(%): '20년초 1.49/1.53 → 7.22일 0.60/0.79 → 8.13일 0.56/0.67
- 국고 3년 금리는 0.80% 내외에서 등락을 지속했으며 장기금리의 경우 대외금리 상승과 4차 추경 가능성으로 상승(국고 10년: 7.31일 1.30% → 8.13일 1.36%)
  - 회사채 시장에서는 비우량 크레딧 매입 기구 가동으로 금리 하락이 제한되었던 A급 이하 신용 스프레드 축소(A-/BBB+(3년, bp): 7.29일 167/428 → 8.13일 164/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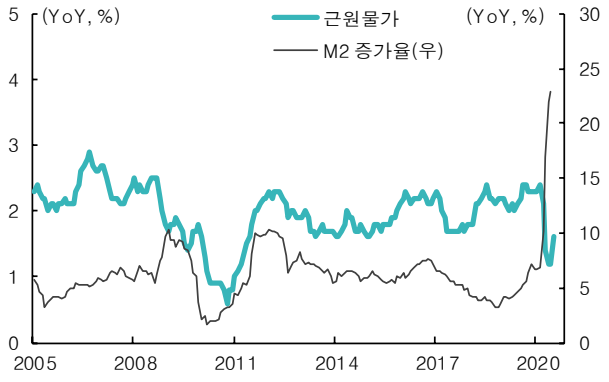
■ 미국 물가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에는 아직 부족

- 전방위적 완화정책에 힘입은 통화량 급증과 연준의 일시적 물가 상승 용인 스탠스 등이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 강화
  - 美 물가연동채권 금리가 40년래 최저치(10년물 -1.08%)까지 하락해 채권 가격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도 급증
- 또한 美 근원 CPI가 가파르게 상승(6월 0.2%→7월 0.6%, MoM)해 29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타 물가 지표도 예상을 상회하자 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 부각
- 다만 이는 경제 셧다운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의 일시적 물가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여전히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근원 CPI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해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하회
- 나아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적인 물가 상승 여부를 주시할 필요

■ 수급 이슈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장기영역 중심의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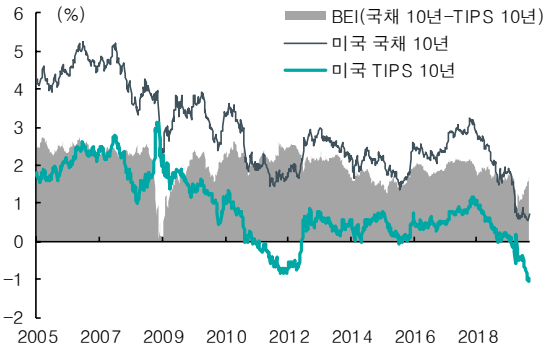
- 금통위(8/27)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실물 간 괴리와 자산시장 유동성 쏠림현상 등 금융불균형과 관련한 언급이 강조될 전망
- 한편 수해 복구와 세수 부진(상반기 세수 진도율 46%, 최근 5년 평균 52%) 속 4차 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의 주시
- 나아가 미국에서도 연준 자산 매입 규모가 정체된 반면, 국채 발행 확대로 수급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75~0.88%, 1.25%~1.45% 범위로 예상

■ 미국 통화 증가율과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 Bloomberg

■ 미국 금리와 시장 기대인플레이션(BEI)



자료 : Bondweb

외환: 터키發 금융 불안의 영향은 제한적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백신 개발 및 경기 회복 기대로 위험선호심리가 고조되고,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며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달러 약세(달러인덱스 기준 7월 -4.2%)가 일단락되면서 1,183원(20개월 이평선)에서 지지력을 보였다. 한편 터키 리라화가 연일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터키發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신흥국 및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리라화 약세 지속 시 간접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가 일단락되었으나, 위안화 강세 기조로 1,180원대 안착

- 약달러 기조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8.15일 무역합의 이행 평가를 앞두고 미중 긴장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190원 초반대의 등락을 지속하였음
- 이후 유로존 PMI 등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 및 러시아發 백신 개발 기대로 위험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185원 부근으로 하향안정
- 한편 달러 약세폭 대비 원/달러 환율 하락 정도는 제한되었는데, 이는 ①위안화 지지력과 더불어, ②무역 흑자 축소 & 개인의 해외 주식투자 급증(개인은 환헷지 비율이 낮음)이 빚어낸 타이트한 수급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해외 주식 순매수: '19년 1~7월($19억) vs 20년 1~7월($95.6억)

■ 가파르게 진행된 달러 약세와 유로화 강세 이후 숨고르기 장세 진행

- 달러인덱스는 美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5만명 이하로 둔화, 양호한 美 경제지표, 위험자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계로 93pt부근에서 약세 일단락
  - 美 5차 경기부양책은 의회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실업수당 지급을 강행하면서 소득절벽 우려는 완화되었음
-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 PMI 호조로 유로당 1.19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최근 투기적 매수세가 유입되며 보인 급등에 대한 피로도로 속도 조절을 시현
- 위안화는 미중 갈등 노이즈 지속에도 불구, 인민은행 통화정책 기조 변경 및 실개입 경계에 따라 강세 압력을 받으며 위안/달러가 달러당 7.0위안을 하회
  - 인민은행은 8.13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 축소 가능성을 내비침

■ 터키 리라화 약세에 따른 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 점검

- 터키 리라화가 ①코로나 19에 따른 경제기반 악화, ②기준금리 인하, ③외환보유고 고갈 우려 등으로 7월 이후 7% 가까이 절하되며 터키發 위기 우려 점증
  - 특히 터키는 이번 코로나 팬더믹 이후 미국과 통화스왑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 과거 2018년 터키發 위기 당시, 리라화 가치 급락으로 터키 익스포저가 높은 유럽 은행권으로 위기가 전염.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원/달러 환율 상승'의 경로를 거치며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에서 1,130원대로 급등한 바 있음

- (과거 대비 '부정' 요인) ①코로나가 지속되며 서비스 수지에 중요한 관광 수입 회복이 요원한 상황, ②경기 회복을 위해 터키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스탠스를 지속할 가능성, ③외환보유고(금 제외)의 가파른 고갈(연초대비 3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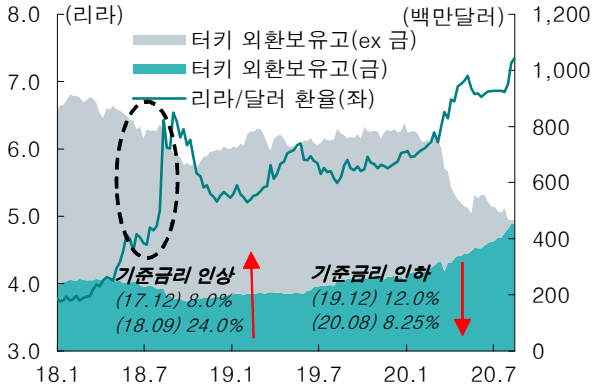
- 다만 ①외국인의 對터키 익스포저 감소(18년 1Q대비 -17%), ②인도, 러시아 등 他신흥국 외환보유의 18년 이후 꾸준한 증가, ③올해 만기 예정 외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신흥국 불안 및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는 제한적
  - 다만 여전히 스페인, 프랑스 등 남유럽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터키 익스포저 집중

- 그러나 최근 급등을 보였던 유로화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신흥국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

■ 글로벌 이벤트 속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되며 1,180~1,195원 등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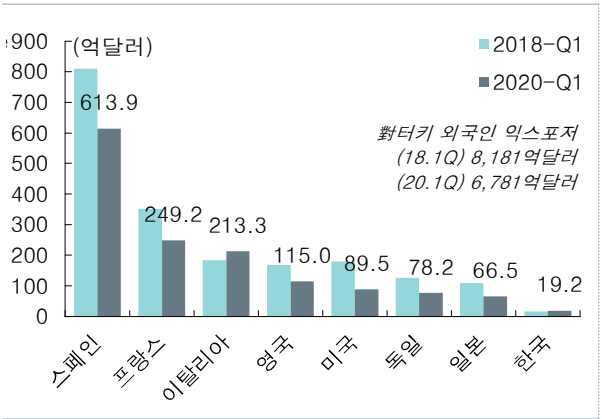
- 美 추가부양책 합의 진통, 미중 갈등 고조 가능성, 유럽 코로나 재확산 조짐, 터키發 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경계 속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 차주 미중 고위급 회담(8.15일) 결과, 주요국 제조업PMI 발표 등에 주목

■ 터키 리리화 환율과 외환보유고



자료 : Bloomberg

■ 주요국가 터키 익스포저



자료 : BIS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상승

황 규 완 연구위원(gwhwang@hanafn.com)

7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폭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대되었다. 정부는 6.17 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는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수요억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가격 상승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 개정으로 임차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게 되는데 관찰되는 임대료는 기존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당분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폭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대비 확대되며 가격 상승세 지속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6월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7월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음
  -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0.14('20.5월) → 0.41('20.6월) → 0.61('20.7월)
- 상반기 수도권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수원, 안산, 안양 등의 지역 역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1%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 경기도 주요 지역 7월 가격 상승률 : 수원시 0.93%, 안산시 0.91%, 안양시 0.72%
- 한편,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대전, 청주 등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규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 가격 변동률(6월→7월) : 대전시 2.4% → 0.8%, 청주 2.7% → 0.7%

■ 정부, 6.17 대책 후속조치로 7.10 대책 및 공급 확대방안(8.4일) 발표

- 7.10 대책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 확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그 외에 6.17 대책에서 언급한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에서 제시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도 8.4일에 발표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음
  - TF에서 제시한 물량을 포함, '28년까지 수도권에 127만호가 신규로 공급될 계획임
-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7.31일)을 염두에 둔 제도 변화라는 점, 다주택자 세제 강화는 대상 가구가 제한적이라는 점, 주택 공급에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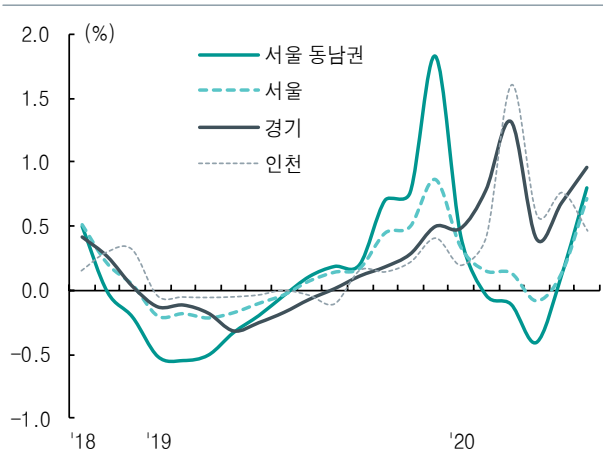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당분간 전세가격 등 임대료 상승세 지속될 전망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당분간 전세시장을 비롯한 임대시장에서 이중가격이 발생할 예정
  - 이중가격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
- 계약갱신이 되는 기존 임차인만이 존재하는 '기존 임대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계약(Q_0)에서 자연 퇴거(n)가 빠지더라도 임대료는 고정(R_0)됨
- 신규 임차인만이 존재하는 '신규 임대시장'에서는 전술한 자연 퇴거(n)분과 신축주택(N)만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므로 임대료는 기존(R_0)보다 높은 R_1으로 결정
- 단, R_0는 관찰이 불가능하고 시장에서는 R_1만이 관찰 가능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이중가격 하에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게 됨

■ 저금리 등으로 글로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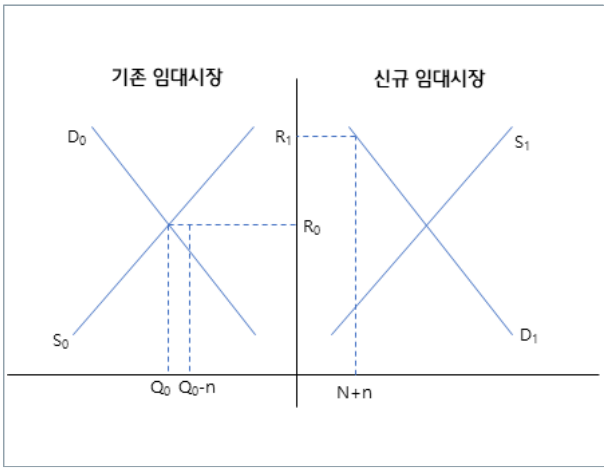
-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추정됨
  - OECD 47개국 평균 가격 상승률 ('15년~'19년) : 23.0%
-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사우디아리비아,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주택가격 변동률('15년~'19년) : 사우디아라비아 -16.5%, 이탈리아 -1.5%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초저금리를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주택가격 문제는 한동안 글로벌 이슈가 될 전망임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주 : 서울 동남권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자료 : 한국감정원

■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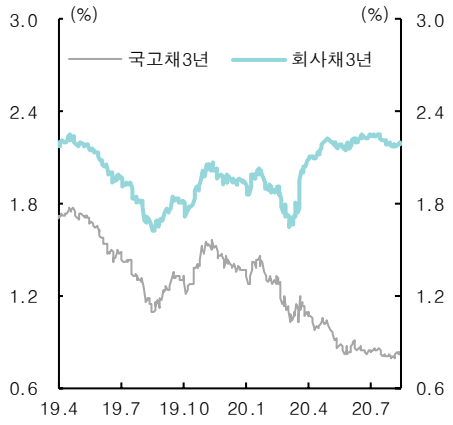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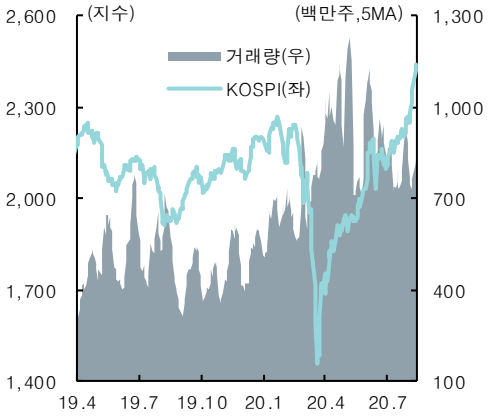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7월말	0.51	0.78	0.73	2.18	0.80	1.03
8월 07일	0.50	0.75	0.73	2.17	0.81	1.06
8월 10일	0.47	0.74	0.74	2.19	0.83	1.10
8월 11일	0.47	0.73	0.74	2.18	0.82	1.08
8월 12일	0.49	0.70	0.74	2.19	0.83	1.09
8월 13일	0.49	0.67	0.74	2.18	0.82	1.08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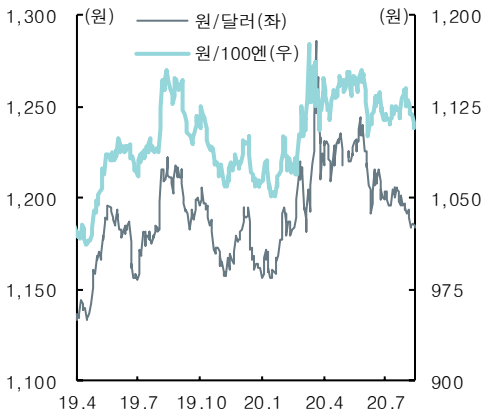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7월말	2,249.4	130,023	740	-548
8월 07일	2,351.7	175,858	813	-730
8월 10일	2,386.4	195,113	785	-1,330
8월 11일	2,418.7	196,804	843	1,512
8월 12일	2,432.4	166,801	764	-1,550
8월 13일	2,437.5	182,500	907	-3,476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7월말	1,191.3	1,124.8	170.8	1,402.3
8월 07일	1,184.7	1,118.3	170.0	1,396.2
8월 10일	1,185.6	1,119.0	170.3	1,391.6
8월 11일	1,185.6	1,112.9	170.8	1,391.9
8월 12일	1,185.3	1,108.5	170.9	1,396.7
8월 13일	1,183.3	1,106.7	170.4	1,3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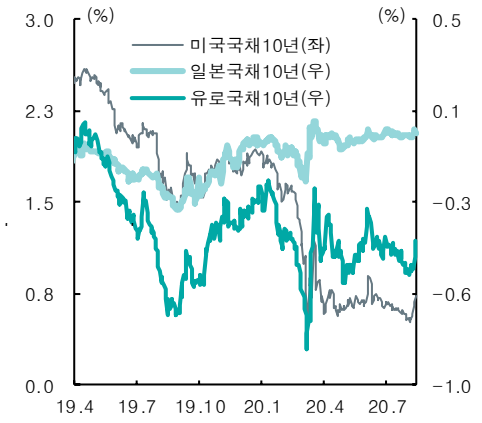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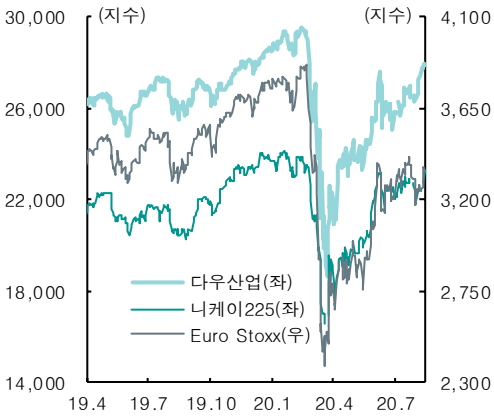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7월말	0.10	0.25	0.11	0.53	0.02	-0.52
8월 07일	0.10	0.25	0.13	0.56	0.01	-0.51
8월 10일	0.10	0.26	0.13	0.58	-	-0.53
8월 11일	0.10	0.25	0.15	0.64	0.03	-0.48
8월 12일	0.10	0.26	0.16	0.67	0.05	-0.45
8월 13일	0.10	0.28	0.16	0.72	0.04	-0.41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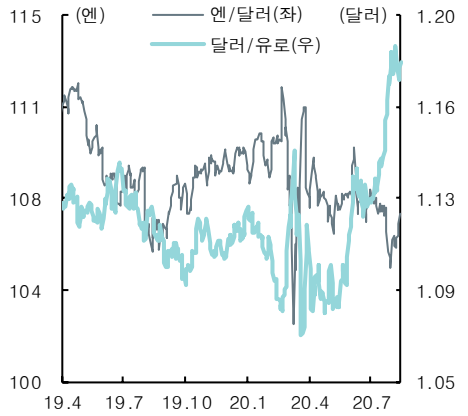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7월말	26,428.3	21,710.0	3,310.0	3,174.3
8월 07일	27,433.5	22,329.9	3,354.0	3,252.7
8월 10일	27,791.4	-	3,379.3	3,259.7
8월 11일	27,686.9	22,750.2	3,340.3	3,332.1
8월 12일	27,976.8	22,844.0	3,319.3	3,363.2
8월 13일	27,896.7	23,249.6	3,320.7	3,342.9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7월말	105.83	1.177	43.1	1,985.9
8월 07일	105.92	1.179	43.9	2,028.0
8월 10일	105.96	1.174	-	2,039.7
8월 11일	106.47	1.174	44.1	1,946.3
8월 12일	106.85	1.178	43.6	1,949.0
8월 13일	106.84	1.181	44.2	1,970.4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메 모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7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0년 8월 15일 인쇄
2020년 8월 17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곽영훈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7호

0732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Tel 2002-2200 Fax 2002-2610